

문헌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of Geographical Division in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

남 태 우(Tae-Woo Nam)*
백 혜 경(Hae-Kyung Baek)**
이 형 미(Hyung-Mi Lee)***
정 수 진(Soo-Jin Jeong)****

< 목 차 >

I. 서론	IV. 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 기준분석
II. 이론적 배경	V. KDC의 한국지역구분표의 문제점과 개선안
III. 주요 국가기관에서의 지역구분 기준분석	VI.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현 KDC 4판의 지역구분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분류법들을 십진과 비십진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류법에서 채택한 지역구분 원칙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기관에서 채택한 지역구분 기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DC 4판 한국지역구분표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마련된 공공기관의 행정구역분류체계와의 연관성 및 일관성 유지 방안과 아울러 행정지리에 의한 구분 이외의 다양한 지리현상을 반영한 추가적인 지역구분기준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KDC4판, 지역구분, 지역구분표, 십진분류법, 비십진분류법

ABSTRAC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point out problems of geographic division structure in current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vide solutions. For this purpose key classification methods were divided to decimal and non-decimal classification methods and analyzed for geographical division principles. In addition, national institutes regional division standards from Korea, USA and Japan were researched. Through these analysis, we provided suggestions to improve the table of geographical division in KDC4 including public institutions administrative district classification structure relations and consistency, and other regional divisional standards (proposal) instead of typi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flecting various geographical conditions.

Keywords: KDC4, Geographic Division Structure, Table of Geographic System, DDC, Non-DDC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merlin75@dreamwiz.com) (공동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merlin75@dreamwiz.com) (공동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ant5075@hanmail.com) (공동저자)

• 접수일: 2008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I. 서론

지역구분표는 특정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주는 장치로서,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KDC와 같은 심진 분류체계는 분석합성식에 비해 다면적 주제 표현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조표로서의 지역구분표는 보다 상세하고 세밀한 지역구분을 위해 고안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KDC 4판의 지역구분표는 정치·행정적 기준을 중심으로 한 국가구분 정도로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 있어 지역구분의 상세전개를 위한 보조표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지역의 주제표현을 위해 세분된 한국지역구분표가 가지는 지역의 전개순서와 계층구조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연성 있고 포괄적인 지역구분표의 개선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 문헌분류법들의 지역구분체계를 검토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 KDC 4판의 지역구분표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진법과 비심진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류체계에서 지역구분의 원리와 기준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한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각국의 일반적인 지역 구분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별로 다양한 기준에 의한 지역 구분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국가별 공공기관에 의한 행정적인 지역 구분체계를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류법들에는 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지리적 특성에 의해 부여된 지역별 번호를 덧붙이기 위해 마련된 지리구분에 대한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다. 모두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진 자료의 주제 표현을 정확히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를 우리말로 칭하는 용어를 ‘지리구분’과 ‘지역구분’으로 혼용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리’와 ‘지역’에 관한 용어정의를 선행하였다.

‘지리(地理 : Geographical feature, Geography)’는 사전적으로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따위의 형편,’ ‘지표면에서 일어나는 자연·인문적 현상²⁾을 가리킨다. 지리현상은 지형, 기후, 식생 등과 같은 자연지리와 행정, 경제, 언어, 교통 등과 같은 인문지리 모두를 포함한다. 이들 지리현상, 혹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구분되어진 지표면의 일부분을 ‘지역(地域: Region)’이라 한다.³⁾ 지리학자들이 내린 정의⁴⁾⁵⁾에 기초하여 사회과학에서 ‘지역(region)’이란 ‘주변의 공간과 경계를 지니

1) DDC, KDC, NDC, CC, LC를 대상으로 KDC 4판의 지역구분표에 해당하는 보조표의 각 명칭을 조사하여 보면 KDC에서는 3판까지의 ‘지리구분표’라는 명칭이 4판에서는 ‘지역구분표’라고 변경되었으며, DDC에서는 17판 이전까지 ‘Geografic division(지리구분표)’라는 명칭이 17판에서 ‘Area Table(지역구분표)’로 바뀌었으며, 20판에서 다시 ‘Geographic Area’로 변경되었다. NDC에서는 ‘地理區分’으로, 그 외 LCC에서는 ‘Geographic table로’, CC에서는 ‘Space isolate’라고 칭하는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2)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 [인용 2008. 11. 11].

3)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http://dictionary.oed.com>> [인용 2008. 11. 11].

4) W. Isard, "Regional Science, the Concept of Region, and Regional Structure," Papers and Proceedings 2,

면서 지리현상 간의 동질성으로(homogeneous)인해 하나로 취급될 수 있는 응집력을 가진 지구(cohesive area)'로 정의될 수 있다.⁶⁾

지리 및 지역에 대한 이상의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상, 지표, 지하의 모든 현실세계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지리(현상)'라고 총칭하고, 이와 같은 지리적 현상에 의해 구분되는 동질의 특성을 지니는 일정 공간을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적 구분기준'에 의한 공간적 분류 혹은 범주화 과정을 통하여 '지역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분류법에서 자료의 주제가 가지는 지역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일련의 보조표를 '지역구분표'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분야 일반에서의 지역구분 원리와, 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 원칙에 관해 비교 분석해 보고, 문헌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 원칙 및 지역구분보조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지리학에서의 지역구분

“지역(region)”의 구분은 상대적 개념에서 시작된다. 한 지역과 타 지역의 존재 의미는 각기 구별되는 동질성 혹은 공통성을 지니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 간에는 서로 차이성이 드러나며, 그럼으로써 두 지역은 상호간에 서로 다름이 확인 된다. 두 지역의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차이성은, 역으로 지역 각각의 내부적 공통성으로 규정되어 각 지역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⁷⁾

일반적으로 지역의 구분은 주제와 객체,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에 관한 사회과학분야의 다양한 정의들을 혼성하여 지역을 동질성지역(同質 : homogeneous region), 결절지역(結節 : nodal region), 그리고 계획지역(計劃 : Planning region)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⁸⁾ 동질성지역이란 지역이 가지는 여러 특성 중 어떤 동일한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의 일반적 기준으로 비슷한 토질, 기후, 자연자원 등 자연적·물리적

Regional Science Association(1956).

5) D. Whittlesey, "The Regional Concept and Regional Method," in P. E. James and C. F. Jones(ed.), *American Geography : Inventory and Prospect* (Syracuse : Syracuse University Press, 1954), pp.19-68.

6) 하병주,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2007, 4), pp.257-258.

7) 정해조, "지역학의 정체성과 패러다임 모색 II," *지중해지역연구*, 제9권 제1호(2007, 4), p.279.

8) J. Meyer, "Regional Economics: A surve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3(1963), p.27.

특성, 동일한 사회적 행태, 유사한 역사 및 정치적 관심 등 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유사한 산업구조, 동질적인 소비행태, 유사한 노동구조 등 경제적인 요소를 들 수 있다. 결절지역은 지역의 기능이나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공간의 개념을 포함하며, 결절지역을 구분하는 측정변수로는 통근거리, 인구이동, 시장권, 버스통행로, 전화통화수 등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 또한, 계획지역은 계획공간으로서 법률에 의한 강제력이나 행정력에 의한 경제계획 의사결정 지역을 의미한다. 계획지역은 다양한 규모와 수준의 행정구역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는 지역통계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행정지역이 자료획득이 용이하고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⁹⁾

이처럼, 이론적으로 다양한 지역구분이 가능하지만, 자연·인문적 지리현상이 가지는 측면의 모든 연관성을 반영한 명확한 지역구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세계의 지역적 구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대륙 및 해양 구분이 있다. 5대양 6대주를 기본으로 하여 지구촌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한계성, 즉 대륙별 구분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구분은 지나친 단순화와 지리적 획일화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프랑스 대혁명 이후 세계 각국의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현재까지 국가지상주의 체제 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지역구분에 있어서 국가와 국경선을 최선의 구분 기준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지역 연구는 국가별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회·문화·관습적 변화가 국가라는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다.¹¹⁾ 따라서 현대의 세계 지역 구분 또한 공식적인 외교·통상 문제와 관련해 대부분이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최근 이러한 국가 지상 주의적 틀 속에 지역연구의 분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언어, 문화 그리고 자연지리학적 혹은 생태학적 구분의 연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국가지상주의적 틀을 배제하면, 가장 중요한 지역구분의 기준으로 언어를 들 수 있는데, 개별 지역 내 보편성을 확보한 정체성의 발현은 동일한 언어사용을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진다. 같거나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비슷한 역사와 문화, 관습을 창출해 나간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경험에서도 증명 되고 있다.¹²⁾

그 밖에,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식생분포를 기준으로 한 쾨펜(W. P. Köppen)의 세계기후구분에 따라 전 세계를 11개의 기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교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원시종교지역, 불교지역, 구교지역, 신교지역, 그리스정교지역, 이슬람교지역, 힌두교지역의 7개 종교지역으로 구분 할 수도 있다.¹³⁾

9) 이만우 외 공저, "지역균형개발 방향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공사의 역할," 한국토지공사(1998), p.79.

10) 정해조, 전개논문, p.279.

11) 상계논문, p.280.

12) 상계논문.

한편, 한국에서의 지역구분은 행정상 구분, 지형상 구분, 인문상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한국의 행정상 지역구분은 오랫동안 8도로 구분되어 오다가 고종 33년(1896)에 함경·평안·충청·전라·경상도를 각각 남북으로 구분하여 13도로 개편되었다. 8·15 광복 이후 서울이 경기에서 분리되어 특별시가 되었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경남, 경북, 경기, 전남, 충남에서 분리·승격, 직할시를 거쳐 광역시가 되었으며, 제주가 전남에서 분리, 도로 승격하였다. 현재 남한은 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 8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은 현재 9개도, 4직할시로 구성¹⁵⁾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행정적 측면에서 지역통정을 하기 위한 인위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형상 구분은 한반도를 지형적으로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부 지방의 주요 산맥은 태백, 광주, 차령, 소백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백산맥은 동쪽으로 치우쳐 남북으로 발달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부 지방은 한리산과 지리산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고 평탄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산맥으로는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이루는 소백산맥과 전남과 전북의 경계가 되는 노령산맥이 있다. 북동부는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높고 험한 산지가 넓게 펼쳐 있어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반면, 서부는 저지대로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북부지방에는 낭림산맥으로부터 관서방향으로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악산맥이 발달되어 있으며, 함경산맥은 동해 쪽으로 급사면을 이루는 한편, 개마고원 쪽으로 완사면을 이루어 뻗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1차적 지역 구분으로서 중부·남부·북부지방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계선의 기준 선정이 일정하지 않아 구분하는 학자 간 견해가 다양하다.

인문 상 구분은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구밀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의 연결선인 의주~영덕을 경계로 동부의 산악, 서부의 평야 지대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서로 다른 언어적 특징(음운적·문법적·어휘적 방언 적 차이에 의한)을 지닌 두 지역을 가르기 위해 가상적으로 그어지는 분계선인 등어선(等語線 isogloss)¹⁶⁾을 기준으로 함경,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로 구분되기도 한다.¹⁷⁾

2. 분류법에서 지역구분의 원칙

S.R. Ranganathan에 의하면, 도서관 분류법에서는, 반드시 지구 표면의 구분이 제공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건(대륙, 국가, 주, 구역 또 다른 정치적 행정적인 구분 같은 것)의 구분이 표면

13)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인용 2008. 11. 11].

14) 강신호, 한국세계대백과사전 6 지리 : 한국의 지역구분(서울 : 동서문화사, 1998), pp.329-331.

15) 북한연구소 홈페이지, <<http://nkorea.or.kr/>> [인용 2008. 11. 19].

16) 등어선(영어: isogloss)이란 지리언어학적 개념으로 어떤 어음, 어의, 언어형식, 악센트 등과 같은 언어적인 특징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갖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구별하는 경계를 나타내는 언어지도(linguistic atlas)상의 관념상의 선이다.

17) 김덕호, "인상적 등어선에 대한 연구," 어문학, 제73호(2001. 6), p.2.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들은 한 선 상에 위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특수한 원칙이 상황에 의지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 세운 어떠한 한정된 지침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¹⁸⁾

보통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한 기본적 범주는 오직 주제 속의 마지막 라운드¹⁹⁾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공간 패킷에서는 라운드를 지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C. A. Cutter에 의하면 지리구분(Geographic division)은 숫자를 사용하여 지리구분한 것으로서 자료를 지역별로 배열하기 위한 구분이다. Dewey는 주제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지역별로 배열하기 위하여 듀이십진분류법에서 사용하는 공통된 지리구분표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K. Kumar는 어떤 주제의 지역적 역사 혹은 지역적 기술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주제에서 사용된다. 이는 지구의 표면, 그 내부의 공간과 외부의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형식이다.²¹⁾

- (a) 대륙, 국가 그리고 구역과 같은 일반적인 지리적 구분
- (b) 대양, 바다 그리고 강과 같은 물의 형성
- (c) 사막, 산맥 그리고 고원의 자연지리학적 형성
- (d) 도시, 마을 그리고 촌과 같은 인구의 무리

장소에 대한 개념은 각 주제에 대하여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었거나 특정 지역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다룬 것으로 일반적인 지리적인 지역(대륙, 국가, 지방), 수면 외 형태에 따른 지역(대양, 바다, 강), 자연 지리적인 형태(사막, 산), 및 인구분포에 따른 지역(시, 읍, 면 등)이 보조표에 포함되어 있다.

지역구분표는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보조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Ranganathan의 공통고립개념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다.

Ranganathan은 장소의 배열 순서를 유용한 순서의 원리를 위해 공간적 인접순의 원칙으로 1) 수직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아래에서 위로의 원칙, 위에서 아래로의 원칙), 2) 수평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원칙,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원칙) 3) 원형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시계 방향의 원칙, 시계 반대 방향의 원칙) 4) 방사 선상의 실체를 위한 원칙(주변에서 중앙으로의 원칙, 중앙에서 주변으로의 원칙) 5)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의 원칙 등에 의해 배열이 되

18)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225.

19)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410. round와 level - 랑가나단은 어떤 개념이 일련의 패킷에서 한번 이상 생겨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와 같은 반복에 대해서는 level(personality와 관련)과 round(energy와 관련)를 통하여 설명하는 정치를 고안하였다.

20) 사공철 등편,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347.

21) K. Kumar, *Theory of Classification*, 5th ed.(New Delhi : Vikas Publishing, 1988), p.291.

어야 한다고 하였다.²²⁾ 그러나 대륙, 국가, 지방 등과 같은 사항은 지구 표면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면상에 있기 때문에 그 인접 관계를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각 분류표에서는 유용한 순서의 원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각 경우마다 적절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 구분은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특성의 기반 위에서 얻어진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변화가 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 구분은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영속성의 원칙이 무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적인 요구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분류 체계가 각기 다른 시대를 제공하는 지역 구분의 다양한 본표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처럼, 문헌분류표의 여러 학자가 제시하는 지역구분체계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특성에 맞는 지역구분체계가 가능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문헌분류법들은 행정적인 기준을 주요한 지역구분 원리로 삼고 있다.

3. 지역구분 보조표의 기능과 역할

현대 문헌분류표는 기본 주제와 하위주제를 열거해 놓은 본표와 본표에 공통적으로 또는 특수한 부분만을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표인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표는 분류표의 외형적 부피를 감소시키고 표의 조직을 단순, 간결하게 하여 분류표의 이해 및 기억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²³⁾ S. R. Ranganathan은 이러한 보조표에 의한 조기법을 일정적조기법(scheduled mnemonics)라 하고 분류표는 동일한 개념이 어디에서 나타나더라도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여 개념을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⁴⁾ Ranganathan은 기호법에서 가능한 조기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정적 조기법 외에도 문자적 조기법(Alphabetical or Verbal Mnemonics), 체계적 조기법(Systematic Mnemonics), 동종적 조기법(Seminal Mnemonics)이 있다.²⁵⁾ 남태우는 위 유형별 조기성 이론을 LCC, DDC, CC에 대비시켜 ① 문자적 조기법은 LCC, CC, 부분적으로 DDC, ② 일정적 조기법은 DDC, CC, ③ 체계적 조기법은 LCC, DDC, CC, ④ 동종적 조기법은 CC에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²⁶⁾

사공철 등은 보조분류표(auxiliary scheduled and tables)는 분류에 추가되는 세가지 별표로서 각 항목에 따라 다른 기호가 분류번호 다음에 추가되며 ① 공통적이며 모든 분류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즉 DDC의 표준구분표, ② 공통적이거나 어떤 주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 즉

22)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420.

23) 정해성, "분류표에서 사용하는 보조표에 대한 연구," *도서관학*집, 제28집(1998. 8), p.193.

24) S. R. Ranganathan, *Prolegomena to Library Classification*, 3rd ed.(New York : Asia Publishing House, 1967), pp.298-299.

25) S. R. Ranganathan, *전계서*, p.294.

26) 남태우, "분류기호법에서의 조기성연구," *도서관학*, 22집(1992. 6), p.215.

Bliss의 서지분류표 Systematic & Auxiliary Schedules, ③ LC 분류표에서와 같이 한 곳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²⁷⁾

보조표가 분류표에 채택된 것은 DDC 2판(1885)에서 Dewey가 처음으로 각 류들을 합성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형식구분(form division)의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Dewey는 2판에서 형식구분, 지리구분 및 문학과 어학의 분야의 형식구분을 위해 사용하였고, 12판(1922)까지도 형식구분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3판(1932)에는 다양한 공통 세구분, 관점, 그리고 형식구분의 세 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공통세구분표 I(common subdivisions)이라고 하고, 15판(1952)과 16판(1958)에서는 다시 형식구분으로 사용하고, 17판(1967)에 와서는 표준구분표 I(standard subdivis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보조표가 되었다.²⁸⁾

지역구분표는 한 주제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졌을 경우에 그 특정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호들을 별도의 보조표로 열거한 것이다. 주요 분류법의 지역구분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DDC의 지역구분표는 7개의 보조표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것으로 정치적, 행정적 특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지역구분표가 별도의 완전한 보조표로 DDC에 등장한 것은 제17판(1967)부터이나 그 이전 판들에서도 역사류 내의 지역별 역사인 930~999와 같이 지역구분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²⁹⁾ Table 2 지역, 시대, 인물 구분표의 기호 중 -1은 정치적인 단위 이외의 지형이나 기후와 같은 일반적인 성격을 기초한 지역구분이고 -3-9는 실제 지역구분으로 -3은 고대 문명을 위한 지역구분, -4-9는 현대 국가를 위한 지역구분이다.

KDC의 한국지역구분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가 한국의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다루고 있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보조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본표의 911.1-.99와 같이 구분하도록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³⁰⁾ 기본적인 구분은 전국 시도 구분이다.

NDC는 DDC의 Table 2와 유사한 지리구분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해양과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는데 쓰이는 해양구분표를 가지고 있다. 전체 40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태평양, 북태평양, 남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지중해, 북극해, 남극해의 순으로 되어 있다.³¹⁾

UDC의 지역구분은 지형학적인 형태, 대륙, 대양, 그리고 극지의 성격에 따라 (1) 일반적인 장소, (2) 지형학적인 부분, (3) 고대의 지역, (4)부터 (8)까지는 일반 관습적인 방법으로 대륙에 따라 (91)에서 (99)까지는 대양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륙으로 구분되지 않고 대양에 인접한 국가로 배정되고 있는 것이 다른 분류표와는 다르다.

27) 사공철 등, 문헌정보학용어사전(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6), p.160.

28) 정해성, 전개논문, p.196.

29) 이창수, "DDC 地域區分表의 變遷過程," 도서관학논집, 제18집(1991. 1), p.213.

30) 오동근, 배영환, 여지숙, KDC의 이해(서울: 태일사, 2002), p.36.

31) 김정민, 남태우, "주요 십진분류표에서의 보조표 비교분석 연구 : DDC, KDC, NDC를 중심으로,"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제10회(2003. 8), p.91.

BC는 보조표 1의 “8”과 조합하여 사용되는데 기호는 숫자기호와 문자기호로 구성된다. 숫자기호는 연관된 위치, 방향,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며, 지형학적인 장소와 사회적 정치적인 부문의 장소가 A와 B에 배당되고 C에는 고대시대의 각 지역으로 구분하고, D/Z는 현대의 각국으로 세분하고 있다. D/F는 유럽, O/T는 아시아, U는 오스트리아, V는 아프리카, VW/WT는 대양, X는 아메리카, ZY는 외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대륙의 국가에 대한 세분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세분되어 있다.

CC의 지역구분은 대륙별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오세아니아, 태평양 연안제도, 대양, 남극, 북극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기호 1은 세계적인 지역, 2는 그 도서관에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 3은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보다 그 지역에 관한 장서를 많이 소장하고 있는 가까운 국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기호이며 4부터는 대륙별로 구분하고 있다.³²⁾

본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다양한 지역구분체계가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지역구분이 가능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구분은 기능적 통합의 원리와 동질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한 행정적인 경계 기준에 의한 구분이 대체적이다.³³⁾ 마찬가지로, 오늘날 대부분의 문헌분류법들 또한 행정적인 기준을 주요한 지역구분 원리로 삼고 있다. 자료의 주제가 가지는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양해지는 지리현상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지리구분체계의 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I. 주요 국가기관에서의 지역구분

지역의 범주화 범위와 범주 순서에 대한 기준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가 공공기관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마련된 지역구분체계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1. 한국

우리나라의 행정구역³⁴⁾은 정부수립 당시 9도 14시 133군이었던 것이 그 이후 광역시 및 시의 승격설치가 잇달아 2008년 4월 현재 한국의 행정구역은 시·군·구 253개와 읍·면·동 3527개

32) 정해성, 전개논문, pp.206-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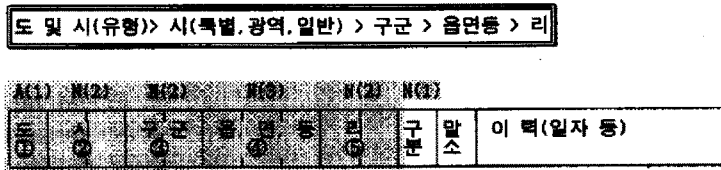
33) 이만우 외 공저, 전개논문, p.79.

34) 구역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토공간을 구분하여 놓은 지리상의 한계”이며, 법적으로는 “일정한 공공의 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지역의 개념과 비교했을 때 구역은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정 주체에 부여된 권한이 미치는 지리상의 범위를 가리키며 보다 인위적인 개념이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자치단체 단위로 나누어 보면 광역자치단체 16개와(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 230개(75시, 86군, 69자치구)로 구분된다.³⁵⁾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업무표준화를 위해 행정표준코드³⁶⁾의 일부로 한국표준지역분류코드(법정동코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국민과 국토의 모든 관련정보의 효율적인 인식과 이용을 돕기 위해 전국의 행정구역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부호화한 코드체계이다.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의해 조직 및 관리되고 있으며 각종 통계조사에 대한 지역자료의 분류와 집계, 지역 간 통계자료의 비교성 제고를 위한 기초로 이용되어진다. 행정구역체계에 기반 한 지역(법정동)코드의 기본구조는 조직체계상의 관할을 중심으로 “도, 시, 구·군, 읍·면·동, 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 10자리 종속적 5단계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각 지역 숫자 값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해진 순서(조례에 따른 서열순)에 입각하여 부여한다. 마찬가지로 구·군, 읍·면·동, 리 또한 할당된 자리 수내에서 각각을 관할하는 지역별로 조례에 따른 순서에 입각하여 일련성 번호를 부여한다.

<표 1> 행정구역코드 부여 체계³⁷⁾



구 분	행정코드 부여 체계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 : 11 • 광역시 : 26부터 1단위씩 부여 • 도 : 41부터 1단위씩 증가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특별시 및 직할시) : 110부터 30단위씩 증가 • 구(일반시) : 해당 시의 코드 값에서 1/3/5 단위로 부여 (140이 시의 코드 값인 경우 서열 순으로 141, 143, 145...순으로 부여) • 시 : 110부터 20단위씩 증가 • 군 : 710부터 10단위씩 증가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 101부터 1단위씩 증가 • 읍 : 250부터 3단위씩 부여 • 면 : 310부터 10단위씩 증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 : 21부터 1단위씩 증가

지역범주에 번호를 매겨 나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의거 하는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주로 시군구, 읍면동, 리 승격의 시간적 순서를

35)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 [인용 2008. 11. 11].

36)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일환으로 각급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행정코드를 표준화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 고시한 행정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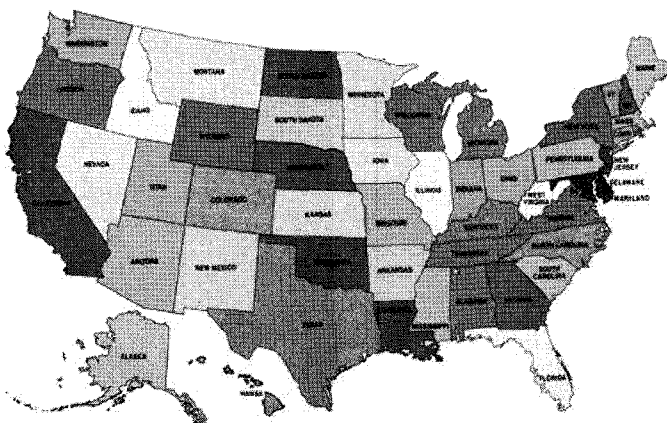
37)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관련코드체계 연구(정보통신연구진흥원, 1995), p.28.

따르거나, 지역의 중심부에서 주변지역 혹은 역으로 전개하는 방법, 북서기번법이나 사행법 등의 지번부여방법³⁸⁾과 같은 공간적 순서에 의거하는 식의 여러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단, 1특별시와 6광역시는 기존 직할시 승격일 순으로 11과 26부터 1단위씩 부여하고 있으며, 9도는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 순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41부터 1단위씩 증가 부여 되어있다.³⁹⁾

읍·면·동과 같이 모든 행정의 포괄적 단위로서의 일반 행정구역이 있는가하면 조세행정을 위한 각급 세무서의 관할단위, 체신행정을 위한 지방체신청의 관할구역, 치안행정의 관할구역과 같이 소관부처의 전문행정기능에 따라 설정되기도 한다. 다양한 행정 구역의 설정방식 간에는 상호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행정구역체계를 기반으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수정된 방식의 지역구분체계를 이용하기도 한다.

2. 미국

U. S. Geological Survey(USGS)는 미국연방의 지질과 지리를 조사하는 대표기관이다. 본토의 48개주와 하와이 주, 알래스카 주를 포함해 2008년 현재 모두 50개주와 1개 특별구(Washington D.C.)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지형은 국토가 넓은 만큼 매우 다양하다. 미국의 지리적 위치는 알래스카 주와 하와이 주를 별도로 하였을 때 북위 24도에서 48도, 경도 67도에서 125도선 안에 들어 있다.⁴⁰⁾



〈그림 1〉 USGS의 미국 지역구분⁴¹⁾

38) 김갑수, 지적행정학개론(신라출판사, 1991), pp.161-180.

39)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인용 2008. 11. 11].

40) 미국지질조사소, <<http://www.usgs.gov/aboutusgs>> [인용 2008. 11. 9].

41)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Geologists(AASG), <<http://www.stategeologists.org/>> [인용 2008. 11. 9].

북아메리카를 반으로 나눈다고 가정하면 캐나다는 북쪽의 절반, 미국은 남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남쪽으로 중앙아메리카의 꼭지를 이루는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미국은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대서양에 접해 있으며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카리브해를 내려다보고 있다.

미국의 지역을 구분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USGS에서는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연안지역, 남부지역, 중서부지역, 서부지역 등 5개 지역으로 국토를 나누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분할구분법을 사용한다. USGS는 미국의 전역을 다음 <표 2>와 같이 크게 5개 지역으로 1차 구분하고, 1차 구분된 지역을 지역에 따라 세분하지 않거나 2-3개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다.

<표 2> USGS의 미국 지역구분

USGS(미국연방지질조사국)			
북동부대서양 연안지역	북동부 대서양 주	뉴잉글랜드	Maine, New Hampshire, Vermont,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
중부대서양 연안지역		중부 대서양 주	New York, New Jersey, Pennsylvania, Delaware, Maryland, Washington DC
남부지역	남동부 주	남동부 대서양 주	Virginia, West Virginia, North, Caroline, South Caroline, Georgia, Florida
	남부 중앙 주	동남 중부주	Kentucky, Tennessee, Alabama, Mississippi
		서남 중부주	Arkansas, Louisiana, Oklahoma, Texas
중서부지역	동북부 중부 주		Ohio, Indiana, Illinois, Michigan, Wisconsin
	서북부 중부 주		Minnesota, Iowa, Missouri, North Dakota, South Dakota, Nebraska, Kansas
서부지역	태평양 북서부		Montana, Wyoming, Idaho, Washington, Oregon
	남서부		Colorado, New Mexico, Arizona, Utah, Nevada, California, Alaska, Hawaii

상기 <표 2>와 같이 1차 구분은 5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2차 구분은 다시 인접성에 7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3차 구분은 50개 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역구분은 3단계 또는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USGS에서는 ‘뉴잉글랜드,’ ‘중부대서양주,’ ‘남동부대서양주’로 좀 더 세분하고 있다. 지역의 나열 순서는 미국이 개척되는 순서와 연관성이 깊으며, 주(states)내에서의 지역세분은 없고 각 카운티(county)를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등 4개의 큰 섬과 4,000개 이상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서 방향으로 3,000km에 걸쳐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서쪽으

로 한반도와 중국 대륙, 북쪽으로 러시아의 사할린, 남쪽으로 대만에 인접해 있다. 행정구역은 1도(都)(東京都), 1도(道)(北海道), 2부(大阪府, 京都府)와 아오모리(青森)현 등 43개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 각각의 시(市)·구(區)·정(町)·촌(村)이 있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토면적, 전국지도 및 주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행정구역, 지명, 경·위도를 검색점으로 삼고 있다.⁴²⁾

47개 행정구역은 지리적 여건에 따라 권역으로 묶거나 세분화하기도 한다. <표 3>은 주요 국가기관의 지역구분을 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토지리원은 국토를 10개 지역으로 나눈 후 각 도도부현의 면적을 제시하였으며,⁴³⁾ 경찰서는 각 도도부현별로 관할구역을 나누되 북해도는 5개 방면으로 나누었다.⁴⁴⁾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7개 지방으로 묶고 있다.⁴⁵⁾

이와 같이 긴키, 추고쿠, 시코쿠 3개 지방은 동일한 현으로 일정하게 구분되며, 큐슈지방도 오키나와를 포함하나 별도로 구분하는나의 차이점만을 가진다. 홋카이도와 도호쿠지방은 경찰 관할구역에서 홋카이도가 세분화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지방이 묶었을 뿐 세부 도도부현의 행정구역은 동일하다. 따라서 기관에 따라 간토, 호쿠리쿠, 추부지방 구분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지역은 대개 8개 내외의 지방 아래 47개 행정구역이 세분되어 있다. 지역의 나열순서는 북에서 서남쪽으로 진행된다. 수도임에도 도쿄 도를 간토지방에 포함하여 다루는 일본의 지역구분은 우선적으로 서울을 분리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표 3> 일본의 지역구분표

섬 명	행정구역명		국토 지리원	경찰서	선거관리 위원회	NDC
	코드	도도부현명				
홋카이도	01	홋카이도(北海道)	홋카이도	삿포로(札幌)	北海道 東北	홋카이도
				하코다테(函館)		
				아사히카와(旭川)		
				천로(釧路)		
				키타미(北見)		
혼슈	02	아오모리현(青森縣)	도호쿠(東北)	아오모리현	關東 甲信越 靜	도호쿠
	03	이와테현(岩手縣)		이와테현		
	04	미야기현(宮城縣)		미야기현		
	05	아키타현(秋田縣)		아키타현		
	06	야마가타현(山形縣)		야마가타현		
	07	후쿠시마현(福島縣)		후쿠시마현		
	08	이바라키현(茨城縣)	간토	이바라키현		

42) <http://watchizu.gsi.go.jp> [2008. 11. 23].

43) <http://www.gsi.go.jp/KOKUJYOHO/MENCHO/200804/opening.htm> [2008. 11. 23].

44) <http://www.npa.go.jp/syokai/soumul/index.htm> [2008. 11. 23].

45) <http://www.todofuken-senkan.jp/senkan-list.html> [2008. 11. 23].

혼슈	09	도치기현(栃木縣)	(關東)	도치기현	東海北陸	호쿠리쿠		
	10	군마현(群馬縣)		군마현				
	11	사이타마현(埼玉縣)		사이타마현				
	12	치바현(千葉縣)		치바현				
	13	도쿄도(東京都)		경시청				
	14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나가와현					
	15	니가타현(新潟縣)	호쿠리쿠(北陸)	니가타현				
	16	도야마현(富山縣)		도야마현				
	17	이시카와현(石川縣)		이시카와현				
	18	후쿠이현(福井縣)		후쿠이현				
	19	야마나시현(山梨縣)	간토	야마나시현			關東甲信越靜	츄부
	20	나가노현(長野縣)		나가노현				
	21	기후현(岐阜縣)	츄부(中部)	기후현			東海北陸	
	22	시즈오카현(靜岡縣)		시즈오카현			關東甲信越靜	
	23	아이치현(愛知縣)		아이치현			東海北陸	
	24	미에현(三重縣)		미에현				
	25	시가현(滋賀縣)	킨키(近畿)	시가현			近畿	
	26	교토부(京都府)		교토부				
	27	오사카부(大阪府)		오사카부				
	28	효고현(兵庫縣)		효고현				
	29	나라현(奈良縣)		나라현				
	30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와카야마현				
	31	돗토리현(鳥取縣)	츄고쿠(中國)	돗토리현			中國	츄고쿠
	32	시마네현(島根縣)		시마네현				
	33	오카야마현(岡山縣)		오카야마현				
34	히로시마현(廣島縣)	히로시마현						
35	야마구치현(山口縣)	야마구치현						
시코쿠	36	도쿠시마현(徳島縣)	시코쿠	도쿠시마현	四國	시코쿠		
	37	가가와현(香川縣)		가가와현				
	38	에히메현(愛媛縣)		에히메현				
	39	고치현(高知縣)		고치현				
큐슈	40	후쿠오카현(福岡縣)	큐슈	후쿠오카현	九州	큐슈		
	41	사가현(佐賀縣)		사가현				
	42	나가사키현(長崎縣)		나가사키현				
	43	구마모토현(熊本縣)		구마모토현(熊本縣)				
	44	오이타현(大分縣)		오이타현(大分縣)				
	45	미야자키현(宮崎縣)		미야자키현(宮崎縣)				
오키나와	46	가고시마현(鹿児島縣)	오키나와	가고시마현(鹿児島縣)				
	47	오키나와현(沖縄縣)		오키나와현(沖縄縣)				

IV. 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 기준 분석

전 장에서 국가 기관의 지역구분에 관해 살펴본 후, 본 장에서는 분류법에서의 지역구분 기준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문헌분류법들을 크게 십진과 비십진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법의 지역구분표

가 가지는 지역구분 원리를 살펴보고 이들을 상호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분석 대상이 된 십진분류법인 DDC, KDC, NDC에 마련된 자국의 지역구분기준 또한 분석하였다.

1. 십진분류에서의 지역구분 기준 분석

대표적인 십진분류법인 DDC와 DDC의 체계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KDC, NDC의 지역구분기준 및 자국 지역구분기준을 분석하였다.

DDC의 제 2 보조표인 지역구분표는 지형이나 기후, 사회 경제 등과 같이 정치·행정이외의 지리현상에 기초한 지역구분(-1)과 현대 국가의 행정적 지역구분(-4 ~ -9)을 함께 하고 있다. 현대 국가의 지역구분을 위해 먼저 세계를 6대륙으로 구분하여 구대륙에서 신대륙의 순으로 Europe → Asia → Africa → North America → South America → Other parts of world에 4부터 9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다시 이들을 각각 동일한 순차로 십진전개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모든 지역을 균등하게 세분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지역의 광협과 문화·정치적인 측면에서 불균형한 상태를 이루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전개는 상세한 반면, 기타 지역은 충분한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⁶⁾ 물론 이러한 단점은 미시적으로는 Amherst대학 도서관을 거시적으로는 미국도서관을 위한 자국 우선의 분류법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타고난 결점일 수밖에 없지만, 30개 이상의 언어로 전 세계 135개국 200,000여개 이상의 도서관에서 DDC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DDC의 미국 지역구분을 살펴보면 구분의 기준을 정치·행정적 특징에 근거하여 세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중심의 구분은 변경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역구분기준이 되고 있다.⁴⁷⁾ 또한 구분된 지역의 나열순서는 대서양 연안의 북쪽을 시작으로 남쪽 카리브 해 연안의 지역으로 순서를 정하고 오대호 연안의 중부지역에서 서쪽으로 전개하여 태평양 연안의 알래스카 주까지 나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 순서는 미국이 개척되는 순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준다.⁴⁸⁾

NDC의 지역구분표는 이전까지 세계를 대륙별로만 구분하던 것을 신정 9판부터 국가구분까지 세분 전개 하였다. 지역의 나열순서를 살펴보면 자국 및 아시아를 우선으로 구분한 후 아시아 이외의 지역구분은 DDC와 마찬가지로 구대륙에서 신대륙 순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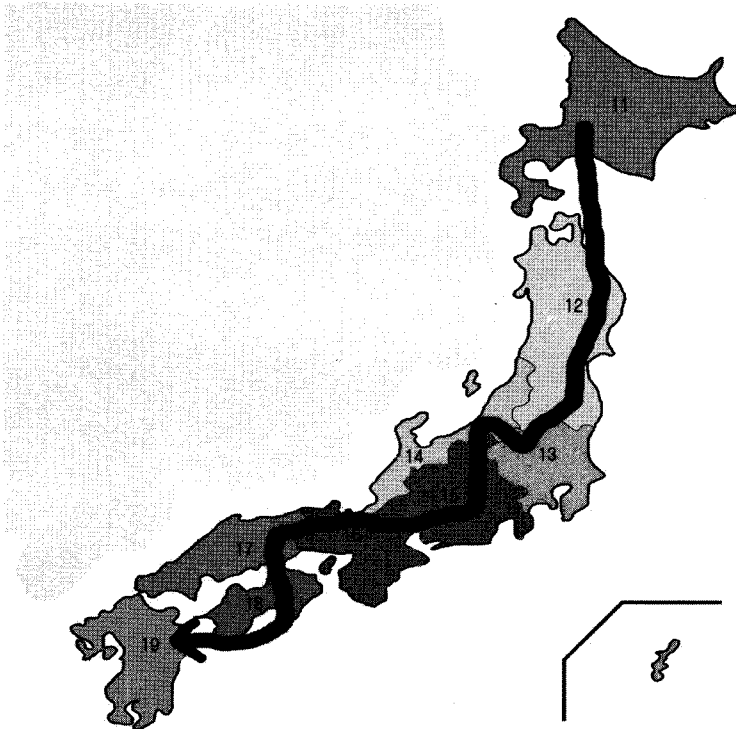
NDC에서는 자국인 일본을 홋카이도지방, 도호쿠지방, 간토지방, 호쿠리쿠(北陸)지방, 추부지방, 긴키지방, 큐슈지방, 시코쿠지방, 큐슈지방의 9개의 지방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

46) 정수진, 한국 십진분류법의 지역, 시대 구분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8), p.64.

47) 광철완,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제35권 제2호(2004. 6), p.78.

48) 전개논문, p.137.

인 8개 지방에서 추부를 호쿠리쿠와 추부로 나누었다. 지리보조표 번호는 -1인 일본아래 순차적으로 -1~-9까지 나누어져 있다. 나열순서는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무원칙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 북에서 남으로 방향성에 주안점을 둔 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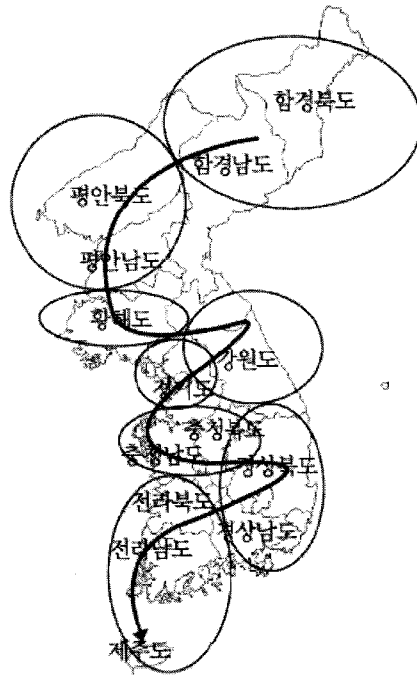


<그림 2> 일본십진분류법에서 9개지방의 나열순서

지리보조표 번호 -11~-19 아래 다시 47개 행정구역이 나뉘 속해 있으며, 도호쿠 지방을 제외하고 오른쪽에서 왼쪽,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반시계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다. 긴키지방을 예로 들면 시가현(滋賀縣, -161) → 교토부(京都府, -162) → 오사카부(大阪府, -163) → 호고현(兵庫縣, -164) → 나라현(奈良縣, -165) → 오카야마현(和歌山縣, -166) 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다만, 추코쿠지방은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구역이 아닌 山陰地方(-171)과 山陽地方(-174)이 먼저 제시된 후 돗토리현(島取縣, -172), 시마네현(島根縣, -173), 오카야마현(岡山縣, -175), 히로시마현(廣島縣, -176), 야마구치현(山口縣, -177)의 순으로 번호를 주고 있다.

KDC에서의 한국 지역구분은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체계에 기반 한 시(市)도(道)의 구분이며, 전국을 9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지역에 도를 앞세우고 시·군을 나열하는 형식을 취한다. 북동쪽의 함경도를 시작으로 평안도 → 황해도 → 강원도 →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충청도 → 경상도 → 전라

도 순으로 남서쪽에서 끝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지역범주의 최소단위는 여러 개의 시·군이 모인 집단이 되며, 9개의 각 지역에 해당하는 하부 지역(도 아래의 시, 군과 특별시 아래의 구)의 나열 역시 9개 지역 나열방식과 유사하게 대부분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 KDC4판의 우리나라 지역구분

다음 <표 4>의 KDC 한국지역구분표를 살펴보면, 먼저 지역범주의 계층구조에서 광역시가 해당도의 아래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시 이하의 세분전개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행정구역체계상 광역시 아래의 구(區)와 동일한 계층의 군(郡)과 광역시가 동일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문·자연 지리적으로 지역성이 확연히 다른 제주도가 전라도의 하위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동등한 16개의 광역자치단체들(1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포함)을 제한된 10진 분류체계 하에서 전개해야하는 방식의 한계점이다.

또한, 각 지역의 나열 순서를 살펴보면, 가장 변방에 위치한 함경도가 가장 먼저 나열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분류체계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광역시를 우선하여 배열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49) 전개논문, p.142.

〈표 4〉 KDC 4판 한국지역구분표

-
- 911.1 함경도(관북지방)
 - .11 함경북도
 - .12 은성군, 경원군, 종성군, 나진시, 경흥군
 - .15 함경남도
 - .16 해산군, 갑산군, 삼수군, 강진군, 풍산군, 단천군
 - .2 평안도(관서지방)
 - .21 평안북도
 - .22 자성군, 후창군, 강계시, 강계군, 위원군, 초산군, 회천군
 - .25 평안남도
 - .26 영원군, 덕천군, 맹산군, 양덕군, 성천군
 - .29 평양시(서경, 서도, 호경), 대동군
 - .3 황해도(해서지방)
 - .32 곡산군, 수안군, 서흥군
 - .4 강원도(관동, 영동지방)
 - .42 통천군,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 .5 경기도(기전지방)
 - .52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 .6 서울특별시(남경, 한양, 한성)
 - .61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7 충청도(호서지방)
 - .71 충청북도
 - .72 충주시, [중원군], 제천시, [제천군], 단양군
 - .75 충청남도
 - .76 천안시, [천안군], 아산시, [아산군], 연기군
 - .8 경상도(영남지방)
 - .81 경상북도
 - .84 대구광역시(대구), [달성군], 고령군, 청도군, 경산시[경산군]
 - .86 경상남도
 - .89 부산광역시(동래), 김해시, 양산군, 밀양시, 울산시
 - .9 전라도(호남지방)
 - .91 전라북도
 - .95 전라남도
 - .96 광주광역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 .99 제주도(탐라국, 탐모라)
-

2. 비십진분류에서의 지역구분 기준 분석

비십진분류법에는 최대의 열거식 분류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LCC와 가장 과학적인 분류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패시 분류법 CC의 지역구분 기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LCC의 지리류는 D 역사 일반 및 아메리카 이외의 지역별 역사 및 지리, E-F 아메리카 역사 및 지리, G 지리학일반 및 계통지리학 4류로 되어 있다.

D류의 지역구분 순서는 대륙별로 볼 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순서로 되어 있다. 대륙별 기호의 배분 현황을 볼 때 유럽은 주요 국가단위로 하위류 하나씩을 배정하여 무려 14개류에 걸쳐서 세밀하게 전개되어 있으나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은 하나의 하위류에 배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은 좁은 기본범위 내에 많은 지역을 전개하다 보니 논리적인 순서에 의한 배정보다는 LC저자기호에 의한 알파벳순의 배열이 많이 도입되었다. 유럽 내의 국가별 배정 순위는 대략 영국을 앞세우고 나머지 지역은 주요 국가의 알파벳 문자 순으로 전개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D류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지역성 보다는 지리적인 지역성에 따라 되어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지명보다는 지리적 지명이 보편적으로 많이 선정되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지명이 정치적 지명보다 변경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⁵⁰⁾

E류는 아메리카 일반과 북아메리카 일반 그리고 인디언 관계가 앞부분에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미국의 일반역사가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다.

F류도 앞부분에는 미국의 지방사가 배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그 외의 아메리카의 제 국가를 중앙 아메리카까지는 지도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정하고, 남아메리카에서는 콜롬비아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의 순서로 공간적 인접순의 원칙을 비교적 잘 반영하여 전개하고 있다. E-F류는 하나의 문자로 하위류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기수(基數)의 폭이 적어져서 하위류의 구분력이 약하여 전개상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서 기호를 확장하는데 소수(小數)에 의한 십진식 전개가 가미되어 있다.⁵¹⁾

G류는 지리학뿐 아니라 인류학과 레크리에이션을 동시 포함하고 있으며, 지리에 관련된 것은 지리학 일반인 G부터 인문지리학인 GF까지로 지명연구, 역사지리, 항공지리, 항해 및 여행일반, 양극지방, 열대지방, 북반구 및 남반구, 지도첩, 지구의, 지도, 수리지리학, 지도제작법, 자연지리학, 해양학이 배정되어 있다. G류에 있어서 전 분야에 적용되는 보조표는 모두 지역구분표로 본표 말미에 4가지가 있다. Table 1과 2는 국가구분표이고, Table 3은 미국의 주(州)구분표, Table 4는 미국의 광역 지역구분표이다.⁵²⁾ 지도첩(G1000-G3122), 지구의(G3160-G3171), 지도(G3180-G9980)가 하위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분류단계는 물리적 형식 → 지역 → 주제 순이며, 경우에 따라 지도의 상황년도 또는 제작년도가 분류기호의 일부로서 첨부되기도 한다. 지도첩과 지도의 세분을 위한 4개의 보조표 및 특별지침이 본표 지도류 뒤에 첨부되어 있으며, 제1표는 청구기호의 구성에 관한 유형별 설명, 제2표는 지도분류기호의 별렬 순위에 대한 예, 제3표와 제4표는 지도 자료의 하위류 세분을 위한 보조표이다.⁵³⁾

50) Chan, Lois Mai, *Imm's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3rd ed.(Littleton, Co., Libraries Unlimited, Inc., 1980), p.165.

51) 이창수,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p.84.

52)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ombined with Additions and Changes Through 2002, Class G, Geography ; Maps ; Anthropology ; Recreation(Detroit, Gale, 2002), p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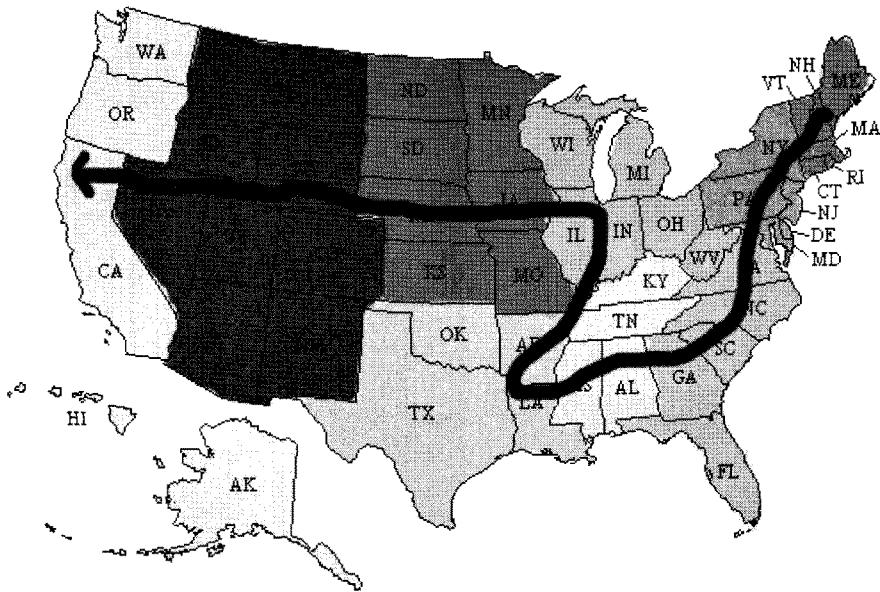
또 G류에는 정치적 구역 설명과 색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5>는 이 중 미국에 관련된 5개의 지도를 정리한 것이다. '지도 1'에서 동부와 서부로 이분된 미국은 '지도 5'에서 9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도 2'와 '지도 3'이다. 이들은 상하 계층을 가지고 구분된 것이 아니며, '지도 1'을 다시 동서와 남북으로 세분한 것을 보여주고, '지도 1'의 동부 또는 서부에 포함되었던 지역이 '지도 2', '지도 3'에서는 서로 반대의 지역에 포함되기도 한다. 십진분류와 같이 계층적 지역 구분에서는 표기하기 애매하거나, 상당한 길이의 분류번호가 필요할 것이다. 지역의 나열순서는 <그림 4>와 같이 크게 동→서로 진행되어 미국의 개척역사 방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분화되면 북→남→동→북→동으로 지그재그 움직이는 동선을 보여준다. '지도 5'는 지역범주에 따라 4-6개주를 하나로 묶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states)의 아래로 내려가면 지역세분은 없고 각 county를 자모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정보탐색에 매우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리적 감각이 없다면, 어느 지역범주 속에 찾고자하는 지역이 속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LCC는 계층별 범주 구분 기준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상위지역범주는 지리적 순서로 하위 지역범주는 지명의 알파벳 순서로 되어있다.⁵⁴⁾

<표 5> LCC 미국 지도1~지도5 지역구분

지도 1	지도 2 -동서세분	지도 3 -남북세분	지도 4	지도 5	소속주	
동부 G3705	대서양주 G3709.3	북동부주 G3710	북동 대서양주 G3715	뉴잉글랜드주 G3720	Maine~Connecticut (6개주)	
				중부대서양주 G3790.3	New York~ Pennsylvania (5개주, 1특별구)	
	남중부주 G3935	남동부주 G3865	남부주 G3860	남대서양주 G3870	Virginia~Florida (6개주)	
				동남중부주 G3940	Kentucky~Mississippi (4개주)	
서부 G4050	중부주 G4040	북서부주 G4125	북중부주 G4060	동남중부주 G4070	Ohio~Wisconsin (5개주)	
				서남중부주 G4130	Minnesota~Kansas (7개주)	
	태평양과 산악지방주 G4210	남서부주 G4295	신남서 G4300	태평양 북서부 G4210	록키 산악지방주 G4220	Montana~Arizona (8개주)
				태평양주 G4230	Alaska~Hawaii (5개주)	

53) 이창수, 전개논문, 87p.

54) 박철완, "한국 지리구분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139.



<그림 4> '지도 5'에서의 분류의 나열순서

CC의 지리는 U*Z, U(Geography)에 설정되어 있고, 전개 순서는 지리와 역사를 함께 다룬 주제, 지리일반, 수리지리, 자연지리, 생물지리, 인문지리, 정치지리, 경제지리, 여행, 통계지리의 순으로 되어 있다. 계통지리학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가 기본주제나 그 하위류로 편성되어 U류에 모여서 배정한 점은 다른 분류표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평가된다.⁵⁵⁾

제7권의 지역구분표(Space Isolate)는 역사류 분류에 있어서 매우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패식 공식상의 [1P1]에 해당하는 요소이다. 지역구분은 대륙별로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서인도제도, 오세아니아, 태평양연안제도, 대양, 남극, 북극의 순서로 되어 있다. 여기서 1은 세계적인 지역을, 2는 그 도서관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위하여, 3은 어떤 도서관이 자기 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그 지역에 관한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가까운 국가를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번호이다. 4부터 9까지는 대륙별 각 지역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양, 양극지방의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하위류 세분은 대체적으로 시계방향으로 1 동, 2 남동, 3 남, 4 남서, 5 서, 6 북서, 7 북, 8 북동의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공간적 인접순의 원칙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 마지막 9는 그 지역 연안의 도서(島嶼)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모든 지역에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조절되어 배정된 곳도 상당히 있다. 또 대부분의 국가

55)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4 pts, 2nd ed.(Madras : the Madras Library Association, 1939).

에 대해서는 도(道)나 주(州)단위 이상의 지방을 하위류로 세분하여 놓고 있고, 각국의 시 등 하위 지역구분은 =0(equal to zero)을 앞세워 지역명의 알파벳 첫 문자를 따서 기호화 한다.⁵⁶⁾

본 장에서는 십진과 비십진으로 나누어 각 문헌분류법의 지역구분체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DC, NDC, LC, CC분류법들은 지역구분을 하는데 있어 정치 행정적 구분 체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지리적 특성들을 고려한 구분체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현 KDC 4판은 국가구분 및 행정적 지역 구분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제를 분류할 때 유연성이 부족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 표현이 어렵다. 십진분류법에서 탄생순서 상 뒤에 위치한 KDC는 DDC와 NDC의 기존 십진분류법에서 적용한 부적합한 방식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KDC의 지역구분 원칙을 학문적 근거에 입각한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V. KDC 한국지역구분표의 문제점 및 개선안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다루어진 자료의 주제표현을 세밀하게 하기위해 KDC는 지역구분표와 함께 한국의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제를 분류하기 위한 한국지역구분표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KDC 4판의 한국지역구분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 4판의 한국지역구분표는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제를 분류할 때 행정지리만을 고려한 전개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표현이 어렵다.

둘째, KDC 4판의 한국지역구분표가 안고 있는 지역계층구조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가장 변방에 위치한 북한의 함경도에서부터 지역의 나열이 시작되고 있고, 두 개 이상의 도를 포함하는 경우 도를 시·군 범주와 동일 계층에 배치하고 있거나 도 아래에 광역시를 배치하고 있으며, 지역성이 확연한 제주도를 전라도 아래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KDC 4판의 한국지역구분표가 가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표 상에서 세분전개하기 힘들었던 지역구분을 수월하게 하기위해, DDC, NDC, LC, CC의 경우와 같이 보다 다양한 지역구분기준에 의한 상세 전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역의 행정적인 구분 뿐 아니라 지형이나 산맥, 강 등의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56) 이창수,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2), pp.119-123.

표현할 지리구분 기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행정지리 중심으로 계층화되어있는 KDC 지역구분 체계 하에서 '낙동강유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론 낙동강이 지나는 모든 지역의 분류번호를 조합하여 표현해야 함으로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소수점 첫째자리에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 이외에 기후, 지형 등의 자연지리와 교통지리 등 지역구분의 다양한 기준을 나타낼 수 있는 번호를 아래의 <표 6>의 예시와 같이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표 6> 다양한 지리적 특성에 따른 지역구분의 예

911.1	- 행정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911.3	- 자연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911.5	- 교통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그 한 예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연결하는 육로, 항로, 해로를 기준으로 한 교통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또한 가능한데, 교통지리에 따른 지역구분(예로 911.5) 후 소수점 둘째자리에 <표 7>의 교통지리 보조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보조표 번호의 나열순서는 일반적으로

<표 7> 교통지리 보조표의 전개(안)

911.5	교통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51	고속도로
.511	경부고속도로
.5115	서해안고속도로
.511001	남해고속도로
.5125	호남고속도로
.52	국도
.521	목포~신의주
.522	신안~부산
.5299	서귀포~제주
.53	지방도(국지도 포함)
.5313	신지~완도
.5315	외나로도~고창
.53201	포항~영덕
.56	철도
.57	지하철(전철)
.58	해로
.59	항공

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 철도, 배, 비행기의 순을 따랐다. 보조표 -1~4까지의 소수점 세 자리 이하는 해당 도로번호를 부여한다. 단,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순환고속도로 등 0으로 끝나는 번호는 맨 끝에 1을 첨가한다. 보조표 -6~9까지의 소수점 세 자리 이하는 노선의 기점

지역번호를 준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남북방향일 때는 남쪽이 기점, 북쪽이 종점이고, 동서방향일 때 서쪽이 기점, 동쪽이 종점이 되는 규칙이 있다. 이를 철도, 해로, 항공에 적용하여 남쪽(서쪽)에 있는 지역을 기점으로 삼고, 북쪽(동쪽)에 있는 지역을 종점으로 삼는다. 지역번호는 911.1의 하위에 있는 번호를 이용한다. 분류번호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점 지역번호는 주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경부선'의 분류번호는 교통지리를 나타내는 지역구분 번호인 911.5에 철도번호인 -6과 911.1(행정지리)이하의 경부선의 기점지에 해당하는 하위번호 -112(부산지역 해당번호 : 다음의 표 8 참조)를 부여해 '911.56112'가 된다.

둘째, KDC 한국지역구분표가 가지는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구분체계에 있어 기존 심진 분류법에서의 지역 구분원리를 비판 없이 차용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서 설정한 행정구역 분류체계와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여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지역구분이 되도록 한다. KDC의 심진 분류체계에 16개의 동등한 광역자치단체를 9개 이하의 지역으로 범주화하여 북한과 함께 분류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분의 최하위 범주화 단위 설정과 구분된 지역의 나열순서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먼저, 지역구분의 계층구조에 하부지역들을 범주화 시키는 문제에서 현재 KDC에서 도 아래에 포함되는 광역시를 도와 동등한 단계에 나열하고, 지역성이 확연한 제주를 다른 도 및 광역시와 동등하게 나열하도록 한다. 지역범주화의 최소단위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체계 상 최하위 단위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수준으로 지나치게 세밀화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자치광역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의 지역범주화의 최소단위로는 인근 2~3개의 시, 군이 모아진 현 KDC 수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행정구역구분의 계층구조는 최상위단계에 해당하는 16개의 자치광역단체가 서로 동등하게 배열되고 그 아래에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가 같은 수준에서 전개 되는 단순한 계층구조를 가지게 한다.

다음으로, 지역의 나열 순서는 현 KDC에서 한국 지역을 나열할 때 지역 간 중요도에 대한 고려 없이 북동에서 남서쪽으로 통일되게 모든 지역을 나열하는 방식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역을 우선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에 해당되는 자료가 변방지역보다는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및 광역시를 우선 배열하는 정부기관의 행정구역분류원리를 반영하여, 지역의 나열 시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를 우선한 남한 배열을 먼저하고 북한지역을 아래쪽에 배열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도와 광역시 아래에 위치하는 시, 군, 구의 배열 또한 정부의 행정구역분류체계의 배열 순서를 따름으로서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행정지리 보조표의 전개(안)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행정지리 보조표의 전개안

911.1	행정지리에 따른 지역구분
.11	특별시 및 광역시
.111	서울특별시
.1111	종로구, 중구, 용산구, ...
.1112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
.112	부산광역시
.113	대구광역시
.117	울산광역시
.12	경기도 및 강원도
.121	경기도
.121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
.1218	양주군, 여주군, 화성, ...
.122	강원도
.1221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1222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
.13	충청도
.131	충청북도
.13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
.136	충청남도
.1361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
.14	전라도
.141	전라북도
.142	전라남도
.15	경상도
.151	경상북도
.152	경상남도
.16	제주자치도
.17	평양직할시 및 남포특급시와 평안도
.18	개성특급시와 황해도
.19	라선특급시와 함경도

VI. 결 론

현 KDC 4판의 지역구분표에서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KDC 5판 개정 시에 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십진분류법과 비십진분류법으로 나누어 주요 문헌분류법에서 취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원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일본, 미국의 주요국가기관에서 정해놓은 지역구분의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KDC 5판 개정 시에 수정·보완되어야 할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지역구분표에서 지역을 구분할 때 취하고 있는 지역 범주화의 최소단위 및 구분 지역의 배열순서 등의 원칙은 국가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 행정구역분류체계와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지역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을 구분하는데 있어 복합적인 지리현상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지리에 의한 단순한 구분체계와 더불어 하천의 유역권, 산맥, 기후구분 등과 같은 자연지리 항목과 교통로, 언어 사용 등의 보다 다양한 지리 항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DC 5판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현 KDC 4판의 지역구분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역구분을 위해 KDC 5판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제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문헌 분류법과 한국, 일본, 미국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지역구분의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보다 연구범위를 확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